

“전국민 대상 포교대책 세우자”

경전속의 전법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의 녹야원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천상과 인간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너희들도 이제 천상과 인간으로부터 해방되라. 너희들은 마땅히 중생세간으로 나아가 그들을 제도하여 이익되게 하고 인간에게나 천상에서 인락하게 하라. 또한 법을 전하러 갈 때 짝지어 다니지 말고 한 사람 한사람씩 흩어져 다녀라.” (불본집행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직 한법을 실천하고 널리 퍼면 신통을 얻고 열반에 이르리라. 그것은 모든 중생을 괴롭히지 않고 해치지 않는 것이니라.” (중일아함경)

수보리아,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아침에 향하의 모래알 수만쯤의 몸으로 보시하고 낮에 다시 향하의 모래알 수만쯤의 몸으로 보시하며 저녁에 또한 향하의 모래알 수만쯤의 몸으로 백천만여 겁동안 보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이 경전을 듣고 진실로 믿고 거스르지 아니하면 그 것이 앞의 것보다 수승할진대 하물며 이경을 베끼고 받아 지너 읽고 외워 남을 위해 자상하게 전해준다 면 그 복은 얼마나 크겠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능히 이경을 받아 지너 읽고 외우며 사람들을 위해 널리 전해준다면 여래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이 사람을 다 볼 것이라니 모두가 해아릴 수 없고 입결을 수 없고 가없으며 생각할 수도 없는 공력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금강경)

어느날 부루나존자가 부처님께 문안을 하고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서방 수로나라 가서 법을 전하고자 하옵니.” “수로나라 사람들은 성질이 난폭하여 협동기를 잘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꾸짖더라도 손이나 팔로 때리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겠나이다.” “같이나 동등으로 너를 때리고 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죽이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알겠나이다.” “이들은 언제인가는 버려야 할 것인데 그들이 고만하게 이몸을 버려 해탈케 해주었다고 생각하겠나이다.” “착하다, 부루나여. 너는 인욕을 성취하였구나. 너는 그들에

“포교 전법기 경 해설이론집”

조계종은 97년 ‘전법의 해’로 지정했다. 출·재가를 망라한 불교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대규모 전법대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 대중을 불법으로 인도할 것을 밝혔다. 본지는 ‘전법의 해’를 맞아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효율적으로 널리 전파할 수 있을지 일선 포교사들의 의견을 모았다. (편집자 주)

‘전법의 해’에 바란다

국제포교사 지속 양성

원명스님 (연등국제불교회회장)



우리 불교가 국제 포교를 본격화한지 30여 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해외에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다. 특히 그 소

련 동구권의 경우 하루 아침에 수만명을 불자화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국제포교에 뜻을 둔 불자들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다른 종교와 비교한다면, 국제포교에 대한 관심은 백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인 국제포교사 양성은 절대 필요하다. 지금 당장 효과가 없다고 소극적이어서는 안된다. 또 현지교포를 포교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만하다.

‘1사찰 1복지시설’ 확대

김철환 (대한불교장제인포교회회장)



그동안 구호성 행사와 일회적인 행사에 그치는 불교정책이 대부분이었던 했지만 불교복지 실현을 위한 초석다지기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노

라나 중장적 정책미비와 인식부족, 불자들의 이질감형성 등으로 인해 장애인 포교 만큼은 제자리 걸음을 멈추고 있는게 사실이다

장애인들도 불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중장차원에서 ‘1사찰 1복지시설 갖기’ 운동을 확대 실시하고, 지역 사찰의 참여와 의식변화를 적극유도해 장애인 포교를 위

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포교대책 마련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소년포교 더 관심을

이병두 (파리미타 국장)



한국불교가 청소년 포교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한 결과 초보적인 단계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청소년 불교가 율곡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무궁무진하다. 율곡계 전법의 해로 제정한 만큼 청소년불교 활성화에도 더욱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왜냐하면 청소년 포교는 곧 미래불교의 산실이기 때문이다.

특별교구제 바람직

경연수 (호국연무사 군법사)



28년이라는 짧지 않은 군포교의 역사가 말해주듯 그동안 군포교단은 군내 수계신자 획득·불교정착화·불교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군법사들만의 노력만으로 군포교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기란 여간 힘겨운 일이 아니다.

군은 그야말로 ‘포교의 황금어장’이다. 황금어장을 공략하기 위한 군포교 ‘특별교구지정’은 어떨까. 군법당과 지역사찰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포교적인 지원으로 군포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면 이는 군포교 전법의 해를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가법사 활동켜져야

성재도 (부산불교교무원장)



현재 조계종에서는 포교사들에 대한 육성사업이 포교사양성에만 그치고 있다. 그 포교사를 조직적으로 육성하고 활용하는 기반이 포교차원에서는 이루어

지지만 각 교구본사 포교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재가법사들이 비공식적으로 활동하고 있을뿐 중장적인 차원에서 재가법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 재가법사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전법이란 결국 재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이므로 스님, 재가법사, 포교사가 합심하여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포교활동을 할 때만이 명실상부한 전법이 가능하리라 본다.

한사람씩 법을 전하러 가라

힘자라는데까지 가르침 설하자

계 가서 제도받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고 불안한 사람을 편안케 하며 열반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반을 얻게 하라.” (잡이합경)

세상에는 두 종류의 보시가 있다. 하나는 법으로 널리 베푸는 것이요, 또 하나는 재물로써 널리 베푸는 것이다. 이 모든 베풀기운데 참으로 훌륭한 베풀은 법을 널리 전하는 일이다. 늘 법보시에 힘쓰도록 하라. (중일아함경)

승방·성음·부락·마을 중의 어디에 있거나 그들은 바와 같이 부모, 친척, 선우(善友), 우인 등을 위해 힘 자라는데까지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듣고 나서 기뻐하여 부처님을 대신해 가르침을 설해서 차례차례로 영향을 미쳐 갈 것이다. (법화경)

남을 위해 경전의 가르침을 설하여 가르치면, 이런 사람은 응당 부처님을 가까이하여 존중하고 공경한 것이 될 것이다. (발보리심경)

해가 있는 사람은 먼저 중생의 마음을 살피고 나서 가르침을 설한다. (지장심론경)

“15일, 14일, 13일, 10일이나 9일, 8일이나 5일, 3일, 2일이나 혹은 날마다 설법하라. 만약 설법하는 사람이 적거든 번갈아 청하고 설하도록 하라. 설법하기를 꺼려하지 말라. 때로는 단 하나의 계승이라도 설하도록 하라.” (사분율)

김진택법사의 전법이야기



미륵의 절대 평등 세상을 꿈꾸어왔던 무릎의 한 가슴에 안겨있는 빛과 음은 5·18 민중항쟁의 엄청난 희생을 겪으면서 ‘나도 버

리고 너도 버리고 버린 그 마음마저 버려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보다는 전지전능하고 보수적인 신의 힘으로 가슴에 쌓인 한을 해소하려는 서구적 거친 신앙생활에 빠져드는 것도 어찌하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시대적 위력앞에 학교에 커진 부처님의 법등은 하나 둘 꺼져가기 시작했다. 70여개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7개 학교의 불교학생회만 가물거리는 불씨를 보듬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 불씨를 피우고 싶었다. 동국대학교에서 불교철학을 전공했다는 인연으로 그 집을 짊어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그러나 경성도 그것도 대구 출생인 나는 80년대 광주에서 부처님 상이라 해도 조심스럽

지 드러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렇고’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을 수도 없었다. 어쨌든 (은장도) (나비는 꽃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등 시집과 수필집을 발간하며 문단 주변에서 글쟁이 흥내를 내고 있던 터라 내가 근무하고 있는 전남여상고에 반 아문학년부터 조직했다. 매주 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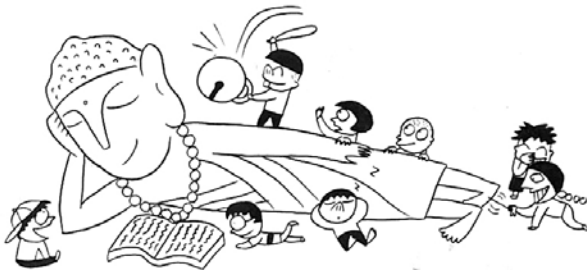
“빛고을 청소년 불심 되살리고 싶었다”

‘아힘사’ 등 발행 문학포교... 2천명 수계 ‘가슴 뿌듯’

간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나 수필 13개 중·고등학교에 불교학생회가 창립했으며 20여곳의 중·고등학교에 법등을 밝힐 수 있었다. 그 결실은 지난 10월 개최한 제1회 광주·전남 청소년불자 2천여명 합동 수계법회로 모아졌다.

“법사복을 보시해 줄테니 큰 마음 내게나” 하신 천은스님, 영조스님은 “실내체육관을 사암연합회에서 책임 지겠으니 힘을 내세요”, 해연스님은 “그까짓 수지에 매달리지 말고 주인

원력없이 사는 것은 마구니의 삶이라 했다가, 94년 10월 광복사 주지능인법사 보람출판사 오재만 사장과의 만남으로 ‘십대들에게 띄우는 붓다의 편지’ 월간 <아힘사>를 발행하여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다.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중의 하나가 일선교사들이다. 95년 12월 불자교사 50여명이 모여 ‘광주·전남불자교사모임’을 결성했다. 이렇게 교사들의 마음과 마음으로 결집된 힘은 두려울 게 없었다.



을 넘어 실내체육관 행사가 아닌 구상무대 무각사 잔디밭으로 옮겨졌다. (아힘사)와 ‘교사들에게 띄우는 부처님의 편지’ 월간 <무등불>을 발행하면서 법회를 꾸준히 가져온 불자교사 모두의 값비싼 원력이었기에 이제는 빈 마음으로 내일을 설계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그때는 정정 두근거렸고 잠도 이루지 못했다. 시누대 푸른 잎에 듣는 빛소리에도 놀랐지만 지금은 빛고을 어디에서도 수계법회때 받은 단추를 손목에 자랑스럽게 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 진달래꽃이 무릎에 번지는 날엔 학교마다 부처님의 법등을 밝히기 위해 나는 더욱 분주할 것이다. 광주·전남불자교사 모두의 마음을 합해서. (광주·전남불자교사회장)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르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인 <기도>의 발간 이후, 독자들로부터 기도 방법을 묻는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저는 현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옳은지요?”... 계속되는 독자들의 기도법에 관한 문의에 저자로서의 책임을 느낀 스님께서는 다시 집필을 시작,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 <생활 속의 기도법>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 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세세한 일타르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등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생활 속의 기도법>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86 / 160면 / 값 3,500원

생활 속의 기도법

“기도는 실천이지 이론이 아니다. 하지만 법에 맞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결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도 방법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성취 만큼이나 중요한 일인 것이다.”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르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체험담을 엮은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가 실린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I. 나의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 III. 암병도 불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육신을 구한 열명의 기도 /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일타르스님의 알기 쉬운 불교책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르스님의 윤회와 인연 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값 4,5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르스님 강설집 신국판 / 값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비구의 <자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공양문 부처님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값 5,000원

범망경보살계1~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무애론(無碍論)을 기록·편집한 책 신국판 / 1~5권 각권 값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르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테이프 5개 1세트 / 값 10,000원